

나주시 역사·문화 관광도시 도약 '날갯짓'



전라도 정명 천년을 앞두고 지난해 금성관에서 열린 기념음악회.

**전라도 정명 천년 맞아
천염염색·마한문화 축제 등
나주만의 예술·문화 접목
다양한 관광자원 적극 개발
올해 관광객 200만명 목표**

나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2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전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7일 지난해 나주를 찾은 관광객은 총 161만34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016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관광객 100만 시대를 열었던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여기에 격년제 개최로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2017국제농업박람회 방문객 50만1163명과 집계 대상이 아닌 나주 지역 여타 관광지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광객은 200만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통계자료에 빛가람 전망대, 금성관, 국립나주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14개소를 방문한 관광객 수치만을 반영했다.

이와같은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는



마한문화축제



황포돛배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앞두고 금성관에서 개최한 D-1년 기념음악회를 비롯해 나주천 일대에 펼쳐졌던 천염염색 축제와 국악공연인 나주풍류열전, 또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서 열린 제3회 마한문화축제 등 나주만의 역사·전통과 색다른 예술·문화를 접목시킨 다양한 축제 이벤트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빛가람전망대는 지난해 관광객 34만명이 찾으며 나주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

이외에도 영산강 황포돛배 탐승 체험, 주말 나주 시티투어, 인기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인기를 모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등이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도했다.

시는 올해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과 더불어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전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과 죽산보 오토캠핑장, 향공례저 이차륙장, 어린이 물놀이공원, 영상테마파크 한옥숙박체험장 조성사업 등 다양하고 매력있는 관광지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나주=김민수기자 kms@

설날 한복 입고 오면 황포돛배 요금 50% 할인

설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16일 설 당일 휴무) 영산강 황포돛배에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주시는 7일 명절 고유의 풍습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이 기간 한복을 착용한 황포돛배(왕건호 포함) 이용객에게 50%요

금 할인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을 활용한 지역 대표 관광상품인 황포돛배 탐승 체험은 영산포 선착장(나주시 등대길 80)에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까지 10km 구간을 약 1시간 동안 운항한다.

운항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한다.

나주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영산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황포돛배를 통해 명절연휴 가족, 친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나주 중앙초등학교 지진 옥외대피소.

지진 대비 112개 대피소 철저 관리

안내 표지판도 재정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 112개 지진대피소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나주 지역 지진대피소는 공공건축물 옥내대피소 10개소, 옥외대피소 23개소, 민방위대피소 42개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37개소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대피시설 확충이 요구되면서 나주시는 올해 대피소 15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향후 인구에 비례한 읍·면·동별 대피소를 확대 지정할 방침

이다. 또 거주지에서 근거리로 위치한 지진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소별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시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지진대피소 확충과 대피 요령이 안내된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시민도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혁신도시 직원·주민 대상
9일까지 빛가람동 일원**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까지 3일간 빛가람동 일원에서 '2018년 설맞이 나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빛가람동 196-2번지(한전·한전KDN사이 예가람타워 옆)에서 펼쳐지는 이번 직판행사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특산물 15여종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 배즙, 한라봉, 아로니아 등을 비롯해 잡곡과 곱감 등 제수용품과 나주축협이 한우, 삼겹살 등 축산물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부담을 덜

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포장할 1kg을 증정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생산농가와 업체는 안정된 판로확보에 따른 소득증대로 모두가 풍성한 명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직거래 판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서도 지난 2일부터 설날 연휴 전날인 15일까지 설맞이 특판전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에 맞춰 나주시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오색마을'(www.fivecolor.co.kr)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지리산은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매매 - 20억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